

지역발전특별회계 도서개발사업 개편 시급하다

도서개발사업 예산지원체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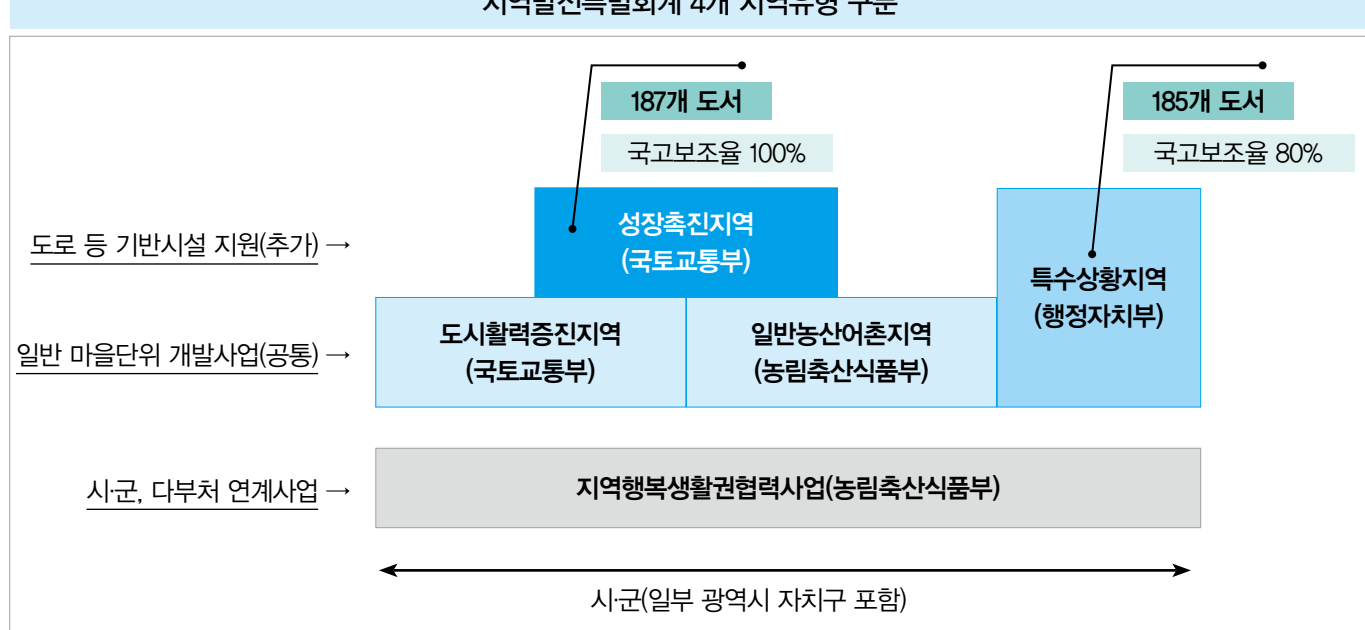
○ 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종합적인 도서개발사업

- 중앙부처가 개별사업 위주로 도서개발사업을 추진하다가 1986년 「도서개발촉진법」 제정 후 1988년부터 '도서종합개발 10개년계획'을 수립하고 10년 단위로 종합적인 사업 추진

○ 2005년 균특법이 제정되면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(현 지역발전특별회계)에서 도서개발사업 예산지원

- 「국가균형발전특별법」에 의거 포괄보조금제도 하에서 2009년부터 기초자치단체는 4개 지역으로 구분, 각 지역별로 중앙부처를 정하여 사업의 예산집행과 사업관리 추진
- * 특수상황지역 : 행자부, 일반농산어촌지역 : 농식품부, 도시활력증진지역 : 국토부, 성장촉진지역 : 국토부
- 「도서개발촉진법」 상 개발대상도서에 해당하는 372개 도서 중에서 185개 도서는 특수상황지역에, 187개 도서는 성장촉진지역으로 구분

지역발전특별회계 4개 지역유형 구분



도서개발사업 개편

○ 포괄보조금제도 도입으로 인한 육지부 중심의 편중지원으로 소외

- 종전에는 도서종합개발10개년계획에 의거하여 계획적으로 추진되던 도서개발사업이 시군구 예산 신청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방식으로 전환
-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이어서 시군 자치단체장은 인구가 집중된 육지부 편중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형성

○ 지특회계의 도서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체계 이원화, 예산지원 불균형

- 같은 도서이면서 특수상황지역에 속한 도서는 행자부에, 성장촉진지역에 속한 도서는 국토부에 예산을 신청해야 하므로 지자체 업무 혼선 초래
- 특수상황지역에 속한 도서는 80%, 성장촉진지역에 속한 도서는 100% 국고지원을 차등적용

○ 지자체의 도서종합개발10개년계획 상 지특회계 예산편성 간 불일치

- 포괄보조금제도로 인해서 자치단체와 주관 부처의 지출한도(ceiling)가 정해져 있어 도서개발수요가 중앙 부처의 예산편성에 제대로 미반영
- 특히, 성장촉진지역에 속해 있는 도서는 개축지구 위주의 사업추진으로 지원대상에서 소외되는 경우도 발생

외국의 시책 : 일본의 이도(離島)진흥법

○ 전국적 시각에서 도서의 개발 및 진흥이 목표

- 섬나라인 일본에서 1953년 제정된 「이도진흥법」은 특수한 섬 지역을 제외한 본토의 모든 섬이 대상이며, 법률의 이념이나 목적이 시대에 따라 변화
- 「이도진흥법」은 도서개발 및 도서주민의 복지에 관한 기본법 성격을 보유

○ 이도진흥계획에 근거한 도서별·사업별 국고보조율 차등지급

- 특히, 2013년 6차 개정에서는 이도진흥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15개 분야에 대한 시책을 비롯하여 소관부처와 특례조치 등을 상당히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
- 이도진흥계획에 기초하여 섬을 지역별로 세분화하고, 도로, 항만, 공항, 농업농촌정비, 수산기반정비 등 세부사업별로 국고보조율 차등배분

〈일본 도서지역별 차등 국고보조율〉

사업명	사업주체	국고보조율			
		아마미 오가사와라	오키나와	이도지역	일반
치수 : 기간하천(2급하천) 개수	현	6/10	9/10	1/2	1/2
치산 : 통상의 산지 치산	현	2/3	9/10	1/2	1/2
해안 : 높은 파도 대책	현·시정촌	2/3	9/10	5.5/10	1/2
도로 : 일반국도 개축(현도 개축)	현	8/10(7/10)	9/10(9/10)	2/3(5.5/10)	5.5/10(1/2)
항만 : 주요 항만 외곽·수역시설	현	9/10	9/10	8/10	5/10 등
농업대책 : 국영관개 배수	국가	9/10	9/10	8.5/10	7/10
공항 : 지방관리공항(2종 공항)	국가	9/10	9/10	8.5/10	7/10
농촌정비 : 중산간지역 종합정비	현·단체	7/10	7.5/10	6/10	5.5/10

출처 : 鹿兒島県(2009), 「奄美群島振興開発特別措置法関係資料」.

지특회계 도서개발사업의 개편방안

○ 전체 도서를 대상으로 섬의 특성과 사업의 특성별로 유형화하여 도서종합개발10개년계획에 의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

- 섬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섬 지역에 일괄적인 정책 지원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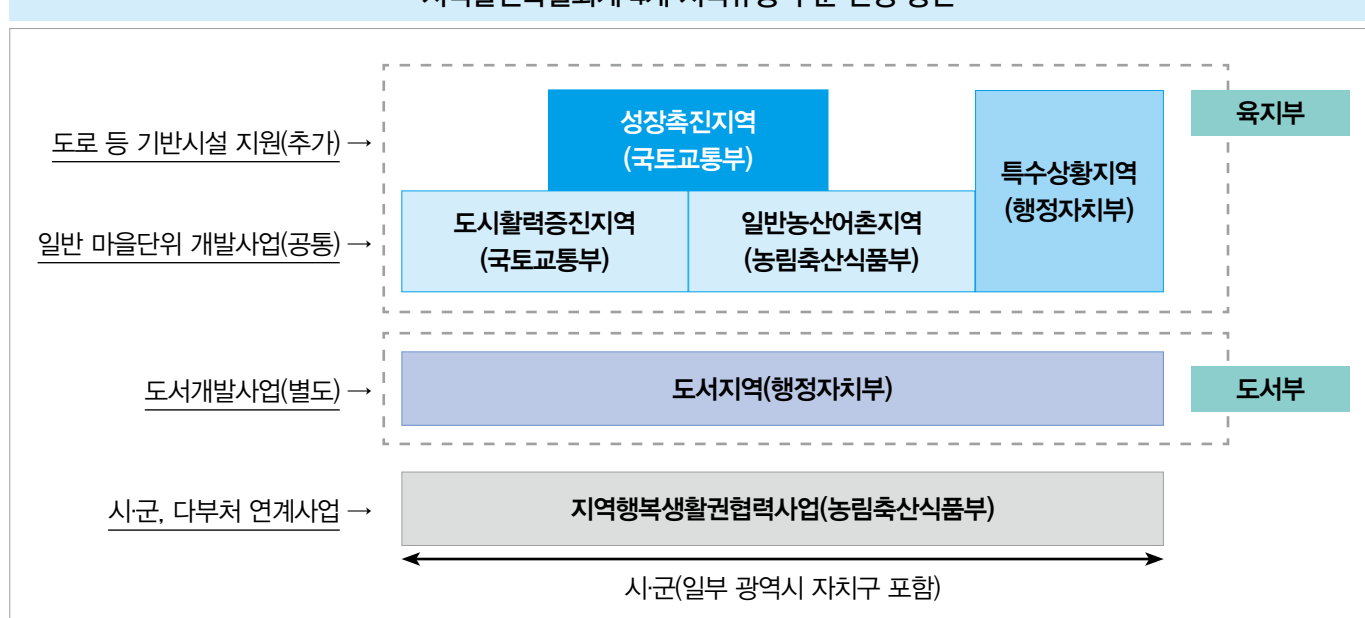
○ (대안 1) 이를 위해 현재 지역유형이 특수상황지역과 성장촉진지역으로 분할되어 있는 개발대상도서를 하나로 통합하고, 주무부처 일원화

- 성장촉진지역은 현재와 같이 낙후 시군단위로 지정하여 시군 전체의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율 우대
- 특수상황지역은 모든 지정도서(개발대상도서)를 포함하여 도서개발사업을 일원화하여 예산지원

○ (대안 2) 섬은 육지와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도서지역을 지특회계 4가지 지역유형에서 분리하여 '육지부' 와 '도서부'로 구분

- 육지부의 경우, 기존과 같이 지역유형을 4가지(도시활력증진, 일반농산어촌, 성장촉진, 특수상황)로 구분
- 도서부의 경우, 도서개발사업 예산신청은 특수상황지역과 별도로 예산 당국에 일괄 요청

지역발전특별회계 4개 지역유형 구분 변경 방안



▶ 내용문의 : 박진경(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, 02-3488-7374, jkpark@krila.re.kr)

▶ 본문보기 : 「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섬발전 전략의 모색」,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섬발전센터 개소 기념 세미나 자료집(2016) [원문보기](#)▶ 도서 미래발전을 위한 효율적 관리방안, 행정자치부(2015) [원문보기](#)▶ 지난호 보기 : Rainy Day Fund와 재정안정화기금의 도입 방안은?(이희재 수석연구원) [원문보기](#)본 메일의 수신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brief@krila.re.kr로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.